

〈일반논문〉

구조와 행위주체 - 노예제도와 식량배급(II)

양 홍 석 *

〈목차〉

- I. 서론
- II. 노예제도하의 식량배급에 대한 연구사
- III. 노예제도하의 식량배급의 실상
- IV.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거쳐 국내로 유입된 노예들은 그들이 결코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의식을 통해 주입받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의식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의식은 음식을 통한 것이다. 이들이 노예제도 시스템인 농장에 도착하면 배급되는 식량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절감하게 된다. 이 사회에서는 음식과 식량을 이용하여 내밀한 계층화, 신분화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경험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사선택한 자료를 근간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주기 십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자는 노예제도 안에서 살아왔던 경험을 다시 정리하는 조사에 충실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노예제도를 경험했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던 이들은 하나같이, 그리고 빠짐없이 음식을 언급하며, 그것을 이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자행해 온 몇몇 사례를 통한 일반화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기왕의 역사가들은 그들의 취향에 맞는 선택적인 기록을 근거로 하여 노예제도 하에서 음식과 식량이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이르기도 했다. 특히나 계량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사가들은 안타까울 정도로 편향적인 수치이상주의에서 기발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물론 음식과 배급 수준을 수치화하는 작업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작업으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이 분야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회고와 기억에서 식량과 음식 이야기가 왜 그렇게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는 인문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단지 수치적인 수준의 이해를 넘어 노예제도하에서 음식을 구조와 행위주체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볼 수 있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허기를 일상화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짐작하는 작업에 보다 더 관심이 실려야 할 것이다.

이 사회의 농장주들에게 음식 배급은 단지 면화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노예제도 하에서의 음식 배급의 실상을 살펴봄으로써 농장주들이 이 사회 안에서 노예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무쇠 우리의 구조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음식과 배급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미국남부노예제도, 구조와 행위주체, 식량, 면화, 칼로리

I. 서론

몇 년 전 “구조와 행위 주체: 남부노예제사회와 역사가들(I)”에서 노예들을 둘러싼 구조라는 무쇠 우리에서 왜 그들의 저항 의지가 제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그들이 일상의 억압 구조와 계층화를 통해 강요받는 공포를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노예들이 여지 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세계의 구조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¹⁾

이와 같은 조망과 이해를 시도해봤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크게는 역사에서 한 사회의 구조(structure)가 그 사회의 종속변수들인 인간들을 어떻게 휘몰아치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좁게는 왜 이 사회에서 독립변수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최소한의 행위 주체(agency)인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저항 의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극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는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가진 노예들의 회고담을 찾고, 또 그것을 분석한 역사가의 주장과 이론과 결합하여야 가능할 수 있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이 사회에서 그와 같은 방식들은 다양한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음식일 것이다. 결국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음식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제와 규율 그리고 계층화는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자평하여 볼 때 여전히 아쉽고 미약하고 더욱이 미숙한 수준이었다. 이 복잡한 지점에 대한 연구사와 사학사적인 고민과 논쟁을 허겁지겁 정리한 것에 불과하였다.

노예제도하에서 거의 전 방위적 차원으로 작동한 구조 차원에 대한 이

1) 「구조와 행위주체: 남부노예제사회와 역사가들(I)」, 『동국사학』 67, 2019, 455-482쪽.

해가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자신감(?)에서 이 논문이 준비되었다. 음식을 이용하여 노예를 통제하는 주인들과 그 틈에서 소외된 노예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이며 완결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음식과 그 배급이라는 문제는 일상의 삶과 생존에서 결정적이다. 이 사회의 구조와 계층, 신분을 증명하고 학습하고 세뇌시킬 수 있는 물질이며 물류이고, 노예들의 삶 전체를 휘어잡는 그 능수능란한 지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도 바로 음식과 그 배급이다.

이전 논문이 음식과 구조화를 다룬 역사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정리했다면, 이번 논문에서는 음식과 구조화의 구체적인 실제와 사실들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채집하고 찾아보는 것에 집중했다. 음식을 통한 구조화를 입증하는 역사적 추적에서 사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세밀하고 촘촘한 증거 자료 수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갑자기 자각하게 되면서 시작된 이 글은 남부 노예제도 사회에서 노예들의 음식의 내용과 배급량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천착한다.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역사가들이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종래의 한계를 불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분류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음식을 통한 구조와 행위 주체에 대한 역사가들의 이론을 줄이고 자료를 최대한 채집하는 것에 경주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지난 글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보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미국의 한 역사가가 말하기를 “과거 역사에서 찾고자 하는 사료를 찾기는 쉽다”²⁾ 고 일갈한 적이 있다. 이 분야의 역사학도 이런 전제와 별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원하는 사료를 취사선택하고 적절하게 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본 글에서는 전편에

2) Eric Foner, “nothing is easier than finding what you are looking for” <https://history-newsnetwork.org/article/what-im-reading-an-interview-with-eric-foner>(2024.03.12 접속)

소개한 역사가들의 이론에 이르게 된 노예들의 배급과 관련한 자료들을 더 확인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면서 노예들이 배급받은 음식들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음식을 통한 이 사회의 서열화와 계층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결론으로 나아가는 데 수월성을 제고할 것이다.

II. 노예제도하의 식량배급에 대한 연구사

조셉 홀트 잉그햄은 1835년 남부의 노예와 그 문화에 관한 놀라운 저술을 남겼다. 그 책을 이루고 있는 주제와 제목은 이 사회가 가진 예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길 안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부분은 책의 마지막 장인 “흑인의 열등성”(African Inferiority)이라는 제목이다. 잉그햄이 스스로를 양키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북부적인 가치와 문화에서 남부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³⁾

인종적인 차원에서도 그는 그 시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백인 인종 우월주의를 내면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가 책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바는 백인 우월주의적 주장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예들에게서 “지능적인 면에서 자극과 영향을 주는 어떠한 노력도 찾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비

3) Joseph Holt Ingraham, *The Southwest by a Yankee* (New York: Harper & Brothers, 1835), Vol. I, pp.192-198; Vol. II, pp.194, 201, 239-240; George Fredrickson, *The Black Image in the White Mind: The Debate on Afro-American Character and Destiny, 1817-1914* (New York: Harper & Row, 1971), pp.12-16, 35-42, 126-129.

판하고, 이어서 노예들의 정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도 일반 사람들 또는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신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간단하게 정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에서 그가 가진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의문이 드러난다.⁴⁾

그런데 그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지 노예제도와 그 생태계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분석과 이해 때문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이 지금 이 시대에서 연구하는 역사가들과 거의 동일한 의문과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⁵⁾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미국 역사가들이 노예제도와 특별히 흑인 인종과의 적절성, 여기에 이 사회에서의 인종 우월주의와 연결된 지배 이데올로기의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는 것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경제적 착취 문제에 대한 근거 자료와 단서를 찾을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인용되는 이유이다.⁶⁾

4) Ibid.

5) Ibid.

6) Winthrop D. Jordan, *White Over Black: American Attitudes to the Negro, 1550-1812*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8); Barbara Jeanne Fields, “Ideology an Race in American History,” J. Morgan Kousser and James M. McPherson, eds., *Region, Race, and Reconstruction: Essays in Honor of C. Vann Woodwa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p.143-177; “Slavery, Race, and Ideolog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Left Review* 181, 1990, pp.95-118; Thomas C. Holt, “Marking Race: Race-making, and the Writing of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50, 1995, pp.1-20; Henry Louis Gates, Jr., ed., *Race, Writing, and “Differ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David Theo Goldberg, ed., *Anatomy of Rac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Evelyn Brooks Higginbotham, “African-American Women’s History and the Metalanguage of Race,” *Sigis* 17, 1992, pp.251-274; Michael O’Malley, “Spe-

노예제도에 기초한 철저한 인종주의 구조와 정치 경제학상 계급, 신분의 위계 제도를 탐구하려는 역사가들의 노력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미시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 노력으로 이제는 실로 상상 못할 다양한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이루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노예 시장의 생생한 역사이다. 노예제도를 구축하고 완성하는 가장 특수한 시간과 공간을 생생하게 살려 이 역사를 완성한 월터 존슨은 상상의 역사, 불가능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의 가공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밖에 뱀티스트의 글에서도 미시와 거시의 세계를 증횡으로 치닫는 수준 높은 분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⁷⁾

그러나 역사가들의 이와 같은 역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조와 행위 주체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먹고사는 문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노예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매일매일의 양식과 음식에 의지해야 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상부계층에서는 지배와 통제를 위한 질서 잡기에 음식을 이

cie and Species: Race and the Money Ques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Nell Irvin Painter, “Response to Michael O’Malley,” *American Historical Review* 99, 1994, pp.369-408; Colette Guillaumin, *Racism, Sexism, Power, and Ideology* (London: Routledge, 1995); and Mia Bay, *The White Image in the Black Mind: African-American Ideas about White People, 1835-19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7) Walter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Edward E. Baptist,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Slavery and The Making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2014); Adam Rothman, *Slave Country: American Expansion and the Origins of the Deep South*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용하고 있었다. 노예제도를 벗어나 그때의 기억을 전할 수 있게 된 노예들이 하나같이 음식과 배고픔에 관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 점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누구도 기억에서 음식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인이 음식을 자의적으로 배급하고 조절하여, 그들은 하루하루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⁸⁾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노예 사회에서의 음식과 그 배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를 되짚어보고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최대한 구성하는데 노력하였다. 만일 이런 노력이 기대에 미칠 수 있다면 결국 이 사회의 구조가 가진 특징, 즉 무쇠우리를 만들기 위해 이 사회의 상부계급이 가장 세밀하게 체계화한 부분이 다름 아닌 음식과 그 배급에 대한 질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 Solomon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ed. Sue Eakin and Joseph Logsd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8), p.127; Charles Ball, *Fifty Years in Chains: or, The Life of an American Slave* (1859; Detroit: Negro University Press, 1969), pp.20, 188; Moses Roper, "A Narrative of the Adventures and Escapes of Moses Roper," *North Carolina Slave Narrative: The Lives of Moses Roper, Lunsford Lane, Moses Grandy, and Thomas H. Jones*, ed. William L. Andr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p.58; Kate E. R. Pickard, *The Kidnapped and the Ransomed: Being the Personal Recollections of Peter Still and His Wife "Vina" after Forty Years of Slavery* (Syracuse, NY: William T. Hamilton, 1856), p.119; Frederick Law Olmsted, *The Cotton Kingdom*, ed. Arthur M. Schlesinger (1860; New York: Random House, 1984), p.427; Leonard Black, *The Life and Sufferings of Leonard Black, a Fugitive from Slavery* (New Bedford, MA: Benjamin Lindsey, 1847), p.8; John Brown, *Slave Life in Georgia: A Narrative of the Life, Sufferings, and Escape of John Brown, a Fugitive Slave*, ed. F. N. Boney (Savannah: Library of Georgia, 1991) p.14; J. A.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Being a Compilation of Facts from the Best Authorities on the Culture of Cotton* (New York: C. M. Saxton, 1857), p.134.

여기에 이런 전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매일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바로 그런 의식으로 내밀화된 신분 차이의 의식이 일상적으로 흑인노예들의 품 안에서 생성되어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에 대한 노예들의 기억의 정리에서도 그 사회의 권력 정치로 음식을 통한 차별과 차이를 일상화하는 그 성스러운(?) 의식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희망 섞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식에 대한 상세한 지표들을 보다 더 조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 노예들의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즉 하루하루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음식이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지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대목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 사회의 음식을 둘러싼 구조와 계서 제도를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 역사적인 분석과 이론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부분의 노력에서 역사가들이 보여준 결과도 사실 흥미롭다. 음식의 배분과 제공에 대한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이 사회의 구조와 행위 주체의 상호작용에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역할을 제법 규정할 수 있었다. 물론 그 한계도 있다. 너무나 선택적 정보와 그 정보에 기초한 일반화로 쉽게 들어가고 있다는 면이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장에서는 기왕의 연구사와 함께 그 비판으로 채워질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거의 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개인을 기준으로 배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 단서로 해서 대략적인 수치, 즉 영양학상의 계량지표인 칼로리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보와 분석은 언제나 노예들의 기억과 회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역사가들이 인용하고 분석하는 대표적인 경우의 기억은 다음과 같다. “주당 3파운드 반의 베이컨과 옥수수만으로 준비된 배급에 만족해야 했다.” 또는 “노예 소유주들의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과 규칙은 각 노예 한 명당 주당 1펙(peck: 8.81리터)의 옥수수의 배급을 준다.” 주로 그런 배급은 “월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날 또한 “소금에 절인 7마리 청어가 배급된다.”는 것이다.⁹⁾

그런데 그런 음식마저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양이나 수준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었다. “음식 배급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주인)는 우리 각자에게 일주일의 기준으로 해서 한 펙의 인디언 밀이 주어졌다. 이것은 다시 갈고 빵고 채로 걸려서 막상 입에 들어올 순간이 되면 한 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채로 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한 펙의 밀가루 그리고 3파운드 반의 베이컨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급의 전부일 뿐이다.” 그들 “노예들이 받는 음식은 거의 다 먹기에 불편한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거의 먹지 못하는 뼈들로 가득한 것이다. 바로 그들이 배급한 고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뼈 무게만큼을 더 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인다. 여기에 채소는 생각도 말아야 할 것이다.”¹⁰⁾

기억을 기반으로 하여 과연 어떤 수준의 배급이 노예들에게 준비되었는가를 찾아가는 재미도 흥미롭다. 그리고 매우 논쟁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런 계산에 의하면 사실 노예제도하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약 3파운드 반의 베이컨의 경우는 과연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1파운드에서는 2,100칼로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렇다면 3.5파운드를 곱하면 약 7,350칼로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옥수수 한 되의 8쿼트가 되고 컵으로는 32컵이 나온다. 한 컵 당 450칼로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 14,000칼로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최고의 수준으로 배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최상의 품질일 때 가능한 것이고 이 칼로리를 다 우리

9) Ibid.

10) Ibid.

의 몸에서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경우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배급 물량의 총칼로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21,350칼로리, 일일 평균 3,000칼로리의 영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와 같은 계산으로 얻은 노예제도의 음식의 배급량에 대한 영양학적 가치를 이제 근대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개인들이 하루에 받아들이는 수준과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그들도 상당한 수준의 영양과 칼로리를 보급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바로 계량적 평가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의 보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¹²⁾

보통 20대의 평균 신장의 남자들은 하루에 1,900칼로리를 소모해야만 기초적인 신진대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육체노동을 가혹하게 감당해야 할 노예들은 이런 수치로서는 견뎌낼 수 없다. 그들의 노동 강도는 심각할 정도였다. 노동 강도에서 보면 시간당 250-350칼로리를 소모해야 버틸 수 있다. 노예들이 시간당 300칼로리를 소비한다고 상정하면, 여기에 당시의 노동이 채찍의 위협 아래 최고의 노동 강도를 끌어내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수치로 견뎌낼 수 있기는 힘들었다. 이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의 막노동 현장 이른바 “노가다”에서 과할 정도로 식사 시간과 음식의 질과 양을 충분히 준비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11) Andrew Baker, “Malnutrition, Ecological Risks, and Slave Mortality,” in Wilma A. Dunaway, *The African-American Family in Slavery and Emancip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Kenneth F. Kiple, *The Caribbean Slave: A Biological Hist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9; 다음 자료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노동자의 신체 사이즈와 노동 강도에 따라 소모되는 칼로리를 과학적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https://www.fao.org/3/y5686e/y5686e.pdf>(2024. 03. 12 접속).

12) Ibid.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공급되는 급식량으로는 그와 같은 노동 강도의 조건들에서는 거의 4시간 정도 버틸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노예들은 4시간이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노동 강도에서 칼로리 부족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로감은 극도의 상태로 빠져들고, 결국 나머지 남겨진 하루의 일과는 기진맥진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¹³⁾

만일 앞에서도 상정한 20대의 노예 노동자들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이와 같은 배급은 생명체로서 그리고 최고의 신체적인 부하를 요구하는 조건에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거의 10시간의 노동을 하는 경우, 하루에 2,000칼로리 수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노예가 해야 할 노동은 이것으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봉착한다. 그는 아이를 기른다는가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피곤이 겹쳐서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밖에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무수히 많은 것이다. 여기에 여자들의 경우 특히나 임신부는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할 것을 상상해보라.¹⁴⁾

신경제사가 로버트 W. 포겔과 스탠리 L. 엔게르만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잘 알려지게 된 계량 경제사의 대작에서도 이와 같은 수치상의 해석에서 오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 있다. 그들의 문제작에서 주장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과 함께 의문점을 동시에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은 옥수수과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의 배급량이 노예들에게 적절하게 보급되었다는 것은 기본이고, 더욱더 여타의 배급품들도 주어졌고 그것도

13) Ibid.

14) Ibid.

외부에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이 제공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전제 하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노예들의 급식량은 하루에 대략 4,185 칼로리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주장한다.¹⁵⁾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이 놀라운 수치는 하나의 결론으로 맺기 위한 것이다. 노예제도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효율적인 제도였고, 노예들의 생활수준이 북부의 노동자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예들이 영양부족이나 음식 배급 수준에서 보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치로 확인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전복하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¹⁶⁾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여지는 있다. 노예들이 제시된 수치상의 영양과 칼로리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젊고 왕성한 체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노예가 매일매일 강도가 높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루당 거의 1,000칼로리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대사율 1,900칼로리에 더하여 시간당 300칼로리를 기준으로 10시간을 노동을 생각하면 4,900칼로리가 최소한 요구된다. 그렇다면 그들 신경제사의 수량적 연구가들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¹⁷⁾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칼로리를 배급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건강한 20대의 남자 노예 경우에는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조절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4천 이상의 칼로리 수준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노동

15) Robert W. Fogel and Stanley L. Engerman,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Boston: Little, Brown, 1974), pp.109-115.

16) Ibid.

17)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pp.463-464, 주 7번 참조.

시간과 강도를 줄여야 생존 자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¹⁸⁾

이런 상태의 영양과 칼로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 외에서는 거의 기초대사만 하는 수준으로 살아 있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지속하기 위한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살아 있는 생명체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쉬는 데도 칼로리를 소모된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노동들이 있었고 저녁에도 활동해야 할 일들이 여럿 있었다.¹⁹⁾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들 신경제사가 제시한 수치에도 의문점이 있다. 어떻게 그 정확한 수치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 논거에 여전히 의문점이 도사리고 있다. 간단하게 그들이 제시한 숫자를 정확한 수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기본적인 지표들을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다.²⁰⁾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들의 역사에서도 분명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통계상의 엄연한 허실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함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점은 바로 노예들은 상당한 수준의 영양 상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정 상황적인 조건에서 이들 수치를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사가이 가지고 있는 희미하지만, 그러나 복잡한 인과성을 추론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²¹⁾

적어도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에서는 여전히 이 사회의 제반 여건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구체

18) Ibid.

19) Ibid.

20) Ibid.

21) Ibid.

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회는 면화 생산에 주목하고 있었다. 단일 식물의 재배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외 모든 생산물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 구조에서는 거의 면화를 제외하고 부족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여기에 음식 경우에도 외부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칼로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론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하루 종일 채찍의 위협 하에 노동의 피로에 시달려야 하는 노예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²²⁾

여기에 거의 90% 이상의 칼로리가 단지 베이컨이라는 단일 식품을 통해서 보충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필요한 칼로리가 단지 지방이라는 영양소를 통하여 공급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물며 통제와 질서를 목표로 음식 공급을 조절하는 상황이 이 사회에서 일상화되었다면, 수치적 차원에서보다 좀 더 정치하고도 세련된 인문학적, 심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그 무쇠 우리 안에서 노예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는 저항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복잡한 감정들과 연결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수치를 통해서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²³⁾

지금까지 계량적 기준이 과연 정확한지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각각 개인차가 있고 개인 간의 노동 강도도 다르기에 표준 수치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 이 수치들을 다시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계량적인 방법의 한계 안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 방식으로는 노예들의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불가능하게 한다. 보통의 일반 북부의 노동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은 혁신적인 주장으로 세상의 이목을

22) Ibid.

23) Fogel and Engerman, *Time on the Cross*, pp.109-115;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pp.463-464; Baker, "Malnutrition,"; Kiple, *The Caribbean Slave*, p.19.

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예들의 영양부족은 그들의 얼굴과 몸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들 모두가 기억하기를 음식의 배급과 그 문제점 그리고 허기를 단연코 제일의 문제로서 되새기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말이다.²⁴⁾

기억과 회고를 하는 노예들이 하나같이 음식과 허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들의 이 부분에서의 조건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앤드류 베이커의 놀라운 지평 확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예들이 감정과 심리 차원에서 느끼는 인문학적 이해가 통계적인 수치보다 의미 있는 답변을 구할 수 있다.²⁵⁾

통계 수치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의 직접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을 뒤집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일상의 경험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 매일의 음식 배급을 살펴보면 수치로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상황적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상적인 기록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그들이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그들의 기억과 경험을 조정하여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노예제도가 끝나는 지점이나 노예제도의 상황에서 탈출하여 온 사람들은 이 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해에 맞게 자신들의 경험을 바꾸고 있었고, 필요시 음식과 배급의 수치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었다.²⁶⁾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기억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부분에서 대안적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유는 그 당시의 이

24) Ibid.

25) Ibid.

26) Johnson, *Soul by Soul*, pp.8-18; Baptist,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pp.427-442, 주 4번 참조.

들 사료에서 각각의 개인적인 기록에서의 차이와 그 공통점을 찾고, 외부인들의 기록들도 함께 비교하면 값진 인문학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단순한 수치와는 다른 여러 역사적인 지평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 당시의 각종 공적 자료와 특히 이 사회에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들의 경영 기록들도 상호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역사가 듀보이스가 말하는 “삼세판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사회에서 음식이 가진 구조적 기능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그런 전제가 여전히 효과적이라는 점, 구체적으로 계량적 지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음 장에서 노예들의 직접 경험들을 다시 찾아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자료에서는 역사가 월터 존슨과 뱃티스트의 주장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수치적 계산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심층적인 흥미로운 사실들을 건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음식을 통한 노예제도 사회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 속에서 일상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음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것이 실상은 쉽지 않다고 해도 최소한 노예 출신들이 음식과 배급에 가졌던 인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²⁸⁾

27) W. E. B. Du Bois, *Black Reconstruction in America: An Essay toward a History of the Part Which Black Folk Played in the Attempt to Reconstruct Democracy in America, 1860-1880*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35); Johnson, *Soul by Soul*, p.8-9.

28) Johnson, *Soul by Soul*, pp.8-18; Baptist,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pp.427-442, 주 4번 참조.

III. 노예제도하의 식량배급의 실상

남북전쟁 전 남부는 노예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지역의 지배 계급과 신분을 영위하던 주인님들은 노예를 통해서 숲을 개간하여 농지로 전환하였다. 곡식을 길렀던 것도 바로 다름 아닌 노예들이었다. 주인님들이 여러 손님을 불러서 함께하는 멋진 음식도 바로 그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안주인들이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인간 상품들의 분주함 덕이라고 할 수 있다. 흑인 노예 인구의 확산함에 따라서 이 사회와 그 구조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도 노예들에 의해서 사실 준비된 것이다.²⁹⁾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예 소유주들은 세대가 계승될 때마다 단단하고 강력한 자신들만의 주장의 합리화를 강화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백인 남자들의 완전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의 성취라는 목소리와 웅변 속에서, 또는 가족을 안녕하고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위대한 부권 능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예에 대한 투자와 투기에서, 또는 주인으로서 관리 능력에서, 그들이 이 사회의 최고 계급으로서 즐기는 여유와 한가와 거의 매일매일 멋지고 웅장한 향연을 벌이는 것에서, 그들의 주장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저택에서는 귀족에 버금가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는 자신의 변론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현재와 그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들 인간 동산의 모든 희생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³⁰⁾

29) Johnson, *Soul by Soul*, p.102; *River of Dark Dreams*; Rothman: *Slave Country*.

반면에 노예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국내노예무역의 풍경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매 순간 하나의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인식은 무엇보다도 의식주에서 먼저 나타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음식의 경우이다. 대서양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의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기에 여기에서는 국내 이주 과정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장에 팔려 가게 되면서부터 먹는 것을 두고 벌어지는 실상을 확인해 볼 것이다.³¹⁾

노예들이 새로운 곳으로 팔려 가기 전에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것은 걷고, 먹고, 자고 하는 일상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이 결코 인간으로 대우받지 않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하게 된다. 특히 음식을 통해서 이런 인상은 최고로 각인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찰스 볼과 솔로몬 노섭의 기억은 바로 그런 상황을 잘 전해준다. 그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밥을 먹을 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흑인들을 비난하고 있을 정도이다. 볼은 식사 시간에 보았던 두 명의 여성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들이 아주 식탐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두 여인은 이미 노예제도에 굴복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매우 만족한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농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일 다른 곳으로 팔려 가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이 나오기만 한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등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이 순간만을 생각했다. 식탁 위에

30) Ibid.

31) Ball, *Fifty Years in Chains*, p.102;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p.42.

음식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들의 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³²⁾

불은 두 명의 흑인 여성을 통해서 노예들의 가치나 인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노섭 또한 자신과 함께 이동하는 무리에서 자신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들과 구별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이 순간에는 그 시대의 다수의 백인처럼 충분히 인종적인 것이다. “그들에게 식탁 접시가 나누어졌다. 그리고 시커먼 손가락들이 나이프와 포크를 대용해서 식판을 휘젓고 있었다.” 그러나 마틴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은 노예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정도의 도덕성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³⁾

이와 같은 상황은 노동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새 농장으로 팔려 가게 되면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노예제도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 농업으로 특수 작물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세계의 자원은 바로 노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식물의 재배와 그 생산량도 결국 “1에이커에서 ‘한 손’이 생산할 수 있는 면화 수확량”로 결정되는 조건에서, 면화의 생산 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생각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 사회는 “면화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농장주”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손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옥수수, 소, 돼지를 길러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노예제도와 결합한 자본주의

32) Ibid.

33) Sella Martin, “Narrative,” in John Blassingame, ed. *Slave Testimony: Two Centuries of Letters, Speeches, Interviews, and Autobiographie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7), p.706.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다.³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노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가 구축하는 그들만의 특화된 경제는 연방 차원의 경제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같이 돈이 되는 선택된 작물의 재배를 통해서 국가 경제 시스템도 도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제는 면화 생산을 통한 전 국토의 유기적인 조망을 그려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제는 노예제도를 통한 면화 생산에 몰입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 나라가 번영으로 이르는 궁극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³⁵⁾

예를 들면 미국의 중서부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라는 곡물도 최종 생산물인 면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재 정도로밖에 간주하지 않았다. 남부인의 경제적 관점에서는 중서부의 그 곡창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남부의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면화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노예 출신이었던 찰스 볼의 증언에서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면화 농장에서 옥수수를 구입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이 농장의 노예들은 굶주림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³⁶⁾

농장주들에게 있어서 자연 상태의 물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변환하

34) Brown, *Slave Life in Georgia*, p.108; John Hebron Moore, *Agriculture in Ante-Bellum Mississippi* (1958; New York: Octagon Books, 1971), pp.56, 109-110; *The Emergence of the Cotton Kingdom in the Old South-west*, p.22; L. C. Gray,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Washington, DC: Carnegie Institute, 1933), Vol. 2, pp.811-816; Olmsted, *The Cotton Kingdom*, p.440;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p.76; Johnson, *Soul by Soul: River of Dark Dreams: Rothman: Slave Country*.

35) Ibid.

36) Bruchey, ed., *Cotton and the Growth of the American Economy*, p.148; Ball, *Fifty Years in Chains*, p.2; Johnson, *Soul by Soul: River of Dark Dreams: Rothman: Slave Country*.

는 절묘한 통제와 기준을 만들어 내는 가장 놀라운 기획들을 끊임없이 고려하게 된다. 그런 것은 농장의 경영자가 식물의 생산 과정에 투입된 비용 대비 생산 결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되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사회의 경제적인 원리이다. 이 과정에서 노예들에게 투입되는 음식과 영양물은 고려하는 것은 투입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대차대자표상 수입의 감소를 막아내는 차원에서 고려였다.³⁷⁾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원 즉 곡물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게 된다. 노예들의 기억에 의하면 농장주는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에게 식량을 일주일 단위로 배급하였다. 또한 그 음식 배급에서 “육류는 배급되는 일이 드문 일이었다.” 적어도 “면화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과 주”에서는 그렇다는 점이다. 당시의 농장주가 전해주는 말도 크게 틀리지 않고 있다. “모든 농장의 인원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식량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런 값비싼 단백질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2월까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1부셀(약2말 정도)의 감자, 1팩(8.81리터)정도의 간 옥수수. 그리고 1팩 정도의 짜라기 수준의 쌀, 끝으로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기가 주어졌다.” 그래도 그런 정도는 괜찮은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경우의 기록을 보면 “1부셀의 감자, 10쿼트의 멧돌로 탄 옥수수, 8쿼트의 쌀, 4쿼트의 완두콩”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하지만 육류”에다가 여기

37) Ibid.

38)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p.134;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p.178.

에 더하여 “20배럴의 소금에 절인 생선, 2배럴의 당밀”이 무려 “170명이 먹을 식량”으로 준비되었다.³⁹⁾

농장주에게 있어서는 노예들이 하루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영양 기준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생각 자체도 없었다. 이유인즉 그들의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비용 중에서 어느 정도를 노예들의 식량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이른바 면화와 음식물 사이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 이해를 따르고 있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동자에 대한 음식물의 투입에 따른 생산량의 관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표로서 인과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식량을 주게 되면, 그 결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 과정에서는 음식물의 비용은 “중속변수”라고 불리는 경제지표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것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노예주가 노예 식량 비용을 중요 비용지출로 고려하지 않았고 결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⁴⁰⁾

그러므로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의 측면으로 보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배급 수준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육류도 그들의 입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제를 운영하고 수지타산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주체인 농장주의 경제 운영의 여러 요인들에서 노예들

39) Ibid.

40)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p.127; Ball, *Fifty Years in Chains*, pp.20, 188; Roper, “A Narrative of the Adventures and Escapes of Moses Roper,” p.58; Pickard, *The Kidnapped and the Ransomed*, p.119; Olmsted, *The Cotton Kingdom*, p.427; Black, *The Life and Sufferings of Leonard Black*, p.8; Brown, *Slave Life in Georgia*, p.14.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p.134;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p.178.

의 식량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투자의 비용을 줄이는 결정적인 것이다. 결국 농장주는 경제 운영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식량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다. 그밖에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가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식량은 언제나 최소한의 준비로서 고려되었다.⁴¹⁾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식량 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투입에 대해서는 오늘날 최고 경제학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지혜가 총동원되고 있었다. 노예들의 식량 배급 수준은 특별히 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최악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굶주림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찰스 볼의 기억은 이렇다. “노예들을 팔아치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배급 되는 옥수수의 양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이 경제학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전해준다. 농장주는 온정주의 또는 가부장주의를 들먹이면서 마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팔아치우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⁴²⁾

노예들의 영양상태가 좋을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나 그런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있는 것은 바로 노예들의 신체와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준비된 식사량 안에서 칼로리 부족의 직접적인 증거를 신체는 보여주고 있었다. 단백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진대사 작용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보관하는 바로 피하지방 즉 피부 바로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영양 결핍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노예들은 어디를 가나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영양 부족 현상은 특수한 공간에서만 있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41) Ibid.

42) Ibid.

43) Ball, *Fifty Years in Chains*, p.21; Henry Bibb, “Narrative of the Life and Adventure of Henry Bibb, An American Slave, Written by Himself” (1847), in

주름이 깊게 패고 퍼석퍼석하고 쇠약한 얼굴에다가 머리카락은 쉽게 잘 부서지고 있었고 원래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찰스 볼의 기억을 들어보자. “거의 반 기아 상태의 흑인 노예들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은 불행 그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얼굴 그 자체”가 그들의 불행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피부는 메마르고 여기에 거의 희끄무레한 모습으로 해서 폐물처럼 보인다. 특히 영양 부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눈과 얼굴이다. 광택이 없고 머리카락도 원래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갈라지고 있었고, 얼굴에 나타나는 굴곡 사이로 먼지가 덕지덕지하게 쌓여 있어서 인간으로 볼 수 없을 지경이다.”⁴⁴⁾

이런 상황이라 생애 주기에서도 최고의 순간이란 젊음 시기에서도 그 아름다운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을 지경이 된다. 보통 그 나이에 오면 자연스럽게 젊음이 온몸과 얼굴에서 터져 나오는 법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기억을 찾아 볼 수 없다. 찰스 볼은 “수많은 이곳의 젊은 여성(노예들)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물론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점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지 “굶주림 때문에”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고 “아름답고 훌륭한 머리카락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불그스레한 색으로 변색”되고 하물며 “그들의 머리 주위에서는 현저하게 긴 갈색의 양모”처럼 변하여 원래의 그 빛깔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고 있다.⁴⁵⁾

이런 기억이 단지 찰스 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헨리 밍의 기억은 이렇다. 그는 레드강을 따라서 농장에서 면화를 재배하고 있

Puttin' on Ole Massa, ed. Gilbert Osofsky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pp.115, 119; James Burn Wallace, “Diary” (1836), p.69, Lower Mississippi Valley Collection, Hill Memorial Library, Louisiana State University.

44) Ball, *Fifty Years in Chains*, p.21.

45) Ibid.

는 농장주에게 팔리는 몸이 되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곳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노예들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걸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제정신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거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한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굶주리고 있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는지 다음의 말을 덧붙이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허용된 음식의 양은 각 개인당 한 썩의 옥수수, 1파운드의 돼지고기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때때로 당밀 1쿼트가 지급되었을 뿐이었다.”⁴⁶⁾

1836년 1월 북부의 여행객이었던 윌리스가 뉴올리언스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거의 굶어 죽을 것 같은” 모습의 한 무리의 흑인 노예들이 북쪽 빅스버그에서 오는 선박에서 내리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빌은 다음과 같은 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노예들은 일단 시장으로 보내지면 그들의 처량하고 지저분한 몸을 말끔히 씻고 새 단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기름을 발라서 그들의 과거 영양상태 부족으로부터 나타난 결핍의 문제점을 감추게 된다.”고 적었다. 아무리 감추어도 보일 것 같은 온몸에서 나타나는 영양상태를 숨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름 바르기를 통하여 “거친 그리고 검은” 얼굴을 위장하는 통과의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적었다.⁴⁷⁾

농장주가 배고픈 노예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음식과 배급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당밀과 고기는 특별한 날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이러한 선물이 주어진다. 은혜로운 주인님의 하사품으로 주어진 것이다.

46) Bibb, “Narrative of the Life and Adventure of Henry Bibb,” pp.115, 119.

47) Wallace, “Diary,” p.69.

루이스 휴즈와 솔로몬 노섭은 그들의 기억을 모은 자료에서 이런 “혜택”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⁴⁸⁾

최고 수준의 칠면조, 돼지고기, 여기에 소고기까지 준비가 되었다. 평 일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단백질 자원에서만 아니라 비스킷, 절임 과일, 당밀, 우유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노예들이 즐기는 이 “향연”을 저 멀리 저택에서 농장주가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만찬에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거의 하루도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음식과 베이컨의 배급으로 살아왔던 노예들만이 그러한 ‘만찬’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노섭이 안타까운 듯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다.⁴⁹⁾

노예들은 일상의 배고픔에서 이제 은총을 기억하게 된다. 주인이 준 바로 그 은총에 격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을 극적으로 쏟아낸다. 실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음식이란 또 다른 의미를 이 사회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노예제도에서는 농장주들이 그들이 노예들에게 배급한 식량을 가지고 칼로리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의 철저할 정도로 고려하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장주들은 식량 배급에 수준에 따라서 노예들이 빈사 상태에 이른다는 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실험으로 얻은 경영적인 지혜를 이용하여 농번기에 노예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급을 하고, 특히나 최대한 노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급의 양을 어느 정도 증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⁵⁰⁾

48) Louis Hughes, *Thirty Years a Slave: From Bondage to Freedom* (Milwaukee: South-Side Printing, 1897), p.47;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p.164.

49)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p.164.

50) Hughes, *Thirty Years a Slave*, p.47;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p.164;

이와 같은 측면에서 노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놀라운 기록이 남겨져 있다.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자료로서 남겨놓은 것이다. “노동의 강도가 특별히 요구될 경우에는 하루에 1 킬트의 스프를 배급하고, 반대로 노동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동일 양을 배급한다.” 또 다른 경우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배급은 일주일에 3-4파운드의 베이컨을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노동 효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바로 이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다.”⁵¹⁾

농장주는 자본주의적 방법과 경영으로 이 사회를 운영하는 법, 최소의 투자와 최대의 효과를 이루는 것에 의해서 생산을 극대화하는 수준과 수준에서 음식의 공급과 배급을 다루고 있었다. 여기에 하나 더 이 사회의 구조를 결정하고 통제와 운영의 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노예들의 음식과 배급을 또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음식과 그 환경 그리고 생태학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계량경제학자들이 결정한 그런 수치로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여러 역사적인 지평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수치 속에 함몰되고 마는 내밀한 통제와 감시의 측면, 여기에 이 안에서 겪게 되었을 노예들의 다양한 심리적 억압 기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p.134; Olmsted, *The Cotton Kingdom*, pp.190, 254.

51) Ibid.

IV. 결론을 대신하여

남북전쟁 전 남부사회의 지배 신분과 계급들은 노예들을 “흑인성”(blackness)을 기준으로 그들을 규정하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흑인의 피부 색깔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흑인의 가진 검정이라는 색깔의 농도가 그들의 육체적인 힘과 능력의 상징을 확인하는 지표이며 기준틀이 된다. 그러나 이 세계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게 되면, 단지 이와 같은 차이에서 이 사회의 정치경제와 사회질서, 윤리를 정형화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기준과 정의 이상의 구체적이고 촘촘한 준비가 더 필요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을 확인하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식의 배분과 유지를 통한 질서의 시각화와 강제화를 도모하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자주 말하듯이 이 문제가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모두가 오직 총력전으로 면화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식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고려의 여지가 없었다. 거의 모든 식량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는 식량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 사회를 경험한 노예들의 기억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에 대한 부족과 통제 그것에 파생하는 일상사가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⁵²⁾

이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신분과 질서를 공고히 하는 일에 음식과 그 배급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52) Hughes, *Thirty Years a Slave*, p.34; Ball, *Fifty Years in Chains*, p.184.

휴즈는 당시 이 지역의 농장에서 음식 중에서 채소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자료를 남겨두었다. 그의 기억의 진술 자료를 통하여 음식의 분류과정에서 이 사회의 계급적인 질서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품질이 “조잡한” 것은 전부 노예를 위해서 제공되고, 반면에 “뛰어난” 음식은 당연히 농장주의 것이라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⁵³⁾

거의 모든 음식을 외부에서 충당하고 오직 면화 생산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경영에서는 최대 수익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투입 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비용 중에서 농장주가 쉽게 회계 장부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량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면 결정적으로 농장의 파산까지로 이르게 될 일이다. 최소 투입량에서 최대 수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손을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노예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이었다. 자신이 먹는 것이 아닌 이상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예들에게 주는 음식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노예들의 음식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놀라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주인님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식량의 배급과 조절을 통하여 이 사회의 생산자인 노예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회에서 노예들의 저항 의지가 잠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음식과 식량을 통하여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노예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법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매일의 생존과 관계되고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은 다른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 사회에서 저항 주체, 행위 주체를 사전에 손보기 위해서 “혀끝을 통제”하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53) Ibid.

효과적일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깊고 상세한 정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볼 것이다.

(2024.03.25. 투고 / 2024.03.31. 심사완료 / 2024.04.12. 게재확정)

[Abstract]

American Slavery: Foods and Its Social Stratum and Ecology

Yang, Hong-Seuk

This critical essay aims at the understanding recently reinterpretation in the slavery system. Specially I focused foods and its social stratum and ecology in the antebellum American South. American Historians have argued that slave's nutrition status and whether it's good or bad. But I could not agree in these arguments because historians have thetically selected original sources such as oral and reminiscence, official public documents. Therefore I have collected and surveyed all the sources and finally arrived, in food's supply in this slavery system, in the unimaginable worst conditions.

□ Keyword

American South, Slavery, Foods, Structure and Agency, Cotton, Calory

[참고문헌]

- Ball, Charles, *Fifty Years in Chains or, The Life of an American Slave*, 1859: Detroit: Negro University Press, 1969.
- Baker, Andrew, "Malnutrition, Ecological Risks, and Slave Mortality," in Wilma A. Dunaway, *The African-American Family in Slavery and Emancip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Bay, Mia, *The White Image in the Black Mind: African-American Ideas about White People, 1835-19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Baptist, Edward E.,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Slavery and The Making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2014.
- Bibb, Henry, "Narrative of the Life and Adventure of Henry Bibb, An American Slave, Written by Himself," 1847, in *Puttin' on Ole Massa*, ed. Gilbert Osofsky,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 Black, Leonard, *The Life and Sufferings of Leonard Black, a Fugitive from Slavery*, New Bedford, MA: Benjamin Lindsey, 1847.
- Bois, W. E. B. Du, *Black Reconstruction in America: An Essay toward a History of the Part Which Black Folk Played in the Attempt to Reconstruct Democracy in America, 1860-1880*,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35.
- Brown, John, *Slave Life in Georgia: A Narrative of the Life, Sufferings, and Escape of John Brown, a Fugitive Slave*, ed. F. N. Boney, Savannah: Library of Georgia, 1991.
- Fields, Barbara Jeanne, "Ideology an Race in American History," in J. Morgan Kousser and James M. McPherson, eds., *Region, Race, and*

Reconstruction: Essays in Honor of C. Vann Woodwa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Fields Barbara Jeanne, "Slavery, Race, and Ideolog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Left Review* 181, 1990.

Fogel, Robert W. and Stanley L. Engerman,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Boston: Little, Brown, 1974.

Foner, Eric, "nothing is easier than finding what you are looking for" <https://historynewsnetwork.org/article/what-im-reading-an-interview-with-eric-foner>.

Fredrickson, George, *The Black Image in the White Mind: The Debate on Afro-American Character and Destiny, 1817-1914*, New York: Harper & Row, 1971.

Gates, Henry Louis, Jr. ed., "*Race, Writing, and Differ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Gray, L. C.,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Washington, DC: Carnegie Institute, 1933.

Guillaumin, Colette, *Racism, Sexism, Power, and Ideology*, London: Routledge, 1995.

Goldberg, David Theo ed., *Anatomy of Rac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Higginbotham, Evelyn Brooks, "African-American Women's History and the Metalanguage of Race," *Sigues* 17, 1992.

Holt, Thomas C., "Marking Race: Race-making, and the Writing of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50, 1995.

<https://www.fao.org/3/y5686e/y5686e.pdf>

Ingraham, Joseph Holt, *The Southwest by a Yankee*, New York: Harp-

- er & Brothers, 1835.
- Johnson, Walter,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 Johnson, Walter,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Jordan, Winthrop D., *White Over Black: American Attitudes to the Negro, 1550-1812*,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8.
- Kiple, Kenneth F., *The Caribbean Slave: A Biological Hist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Martin, Sella, "Narrative," in John Blassingame, ed. *Slave Testimony: Two Centuries of Letters, Speeches, Interviews, and Autobiographie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7.
- Moore, John Hebron, *Agriculture in Ante-Bellum Mississippi*, 1958; New York: Octagon Books, 1971.
- Northup, Solomon, *Twelve Years a Slave*, ed, Sue Eakin and Joseph Logsd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8.
- Olmsted, Frederick Law, *The Cotton Kingdom*, ed, Arthur M. Schlesinger, 1860; New York: Random House, 1984.
- O'Malley, Michael, "Specie and Species: Race and the Money Ques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Nell Irvin Painter, "Response to Michael O'Malley," *American Historical Review* 99, 1994.
- Pickard, Kate E. R., *The Kidnapped and the Ransomed: Being the Personal Recollections of Peter Still and His Wife "Vina" after Forty Years of Slavery*, Syracuse, NY: William T. Hamilton, 1856.
- Roper, Moses, "A Narrative of the Adventures and Escapes of Moses

Roper,” *North Carolina Slave Narrative: The Lives of Moses Roper, Lunsford Lane, Moses Grandy, and Thomas H. Jones*, ed, William L. Andres, Chape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Rothman Adam, *Slave Country: American Expansion and the Origins of the Deep South*,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Turner, J. A., *The Cotton Planter's Manual: Being a Compilation of Facts from the Best Authorities on the Culture of Cotton*, New York: C. M. Saxton, 1857.

Wallace, James Burn, “Diary” 1836, Lower Mississippi Valley Collection, Hill Memorial Library, Louisiana State University.